

혁신도시 기관들 지역구매 비율 높인다

14개 이전기관 전용 온라인 몰 개설... 지난해보다 150억 늘린 1조 1200억원 목표
한전, 전체 기관의 구매액 92.4% 차지... aT·전력거래소·농어촌공사 등은 감소

올해 혁신도시기관 지역 우선구매 목표

기관명	금액	증감액
계	1조1250억	150억
한전	1조400억	234억
한전KDN	441억	38억5000만
한전KPS	186억2000만	3억2900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억3300만	9600만
인터넷진흥원	14억9100만	6800만
사학연금	7억2000만	3100만
방송통신전파진흥원	9억4600만	900만
농촌경제연구원	17억1700만	-
문화예술위원회	3000만	500만
해양경찰교육원	24억9400만	3100만
농식품공무원교육원	9억	1억2800만
콘텐츠진흥원	3억1700만	2억8200만
우정사업정보센터	6억8000만	3억8100만
전파연구원	19억	4억7700만
농어촌공사	32억	13억9300만
전력거래소	50억6000만	24억5100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31억7300만	78억8200만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올해 지역물품 우선구매 목표를 지난해보다 150억(1.3%) 늘린 1조1200억원으로 세웠다.

14개 기관들은 광주·전남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용 온라인몰을 만들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11일 혁신도시 17개 기관들에 따르면 올해 지역발전 계획의 하나인 '재화·서비스 우선구매' 목표 금액은 1조1250억원으로, 지난해 구매금액보다 150억원(1.3%) 증가했다.

지역 우선구매 금액은 지난 2018년 6750억원, 2019년 1조1100억원 등 매년 늘고 있다.

구매금액 규모별로 보면 한국전력은 올해 전체 기관 구매액의 92.4%에 해당하는 1조400억원 상당을 지역 기업으로부터 사들일 계획이다. 한전의 지역 우선구매 금액은 지난해(1조160억)보다 2.3%(234억)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지난해보다 70.1% 증가한 2억3300만원 어치를 구매할 계획이다. 이어 한전KDN 9.6%(올해 구매액 441억), 인터넷진흥원 4.8%(14억9100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5%(7억2000만), 한전 2.3%, 한전KPS 1.8%(186억2100만), 방송통신전파진흥원 1%(9억4600만) 등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지난해보다 지역 구매금액을 적게 세운 기관들도 9곳 있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해(110억)보다 79억원 가량 줄어든 31억7000만원을 목표 금액으로 세웠다. 전력거래소 -24억510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13억9300만원, 국립전파연구원 -4억7700만원, 우정사업정보센터 -3억81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 -2억8200만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1억2800만원, 해양경찰교육원 -3100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0만원 순으로 감소폭을 나타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와 같은 17억1700만원을 지역기업으로부터 구매한다.

혁신도시 14개 기관은 11일부터 전용 온라인몰을 만들어 지역 구매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각 기관 계약 담당자들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플랫폼'을 이용하며 광주·전남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보다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몰에 납품하는 지역기업들은 농산물과 LED조명기구, 청소장비, 사무용기구, 인쇄, 디자인, 출판, 유통, 교육, 위생관리용품 등을 내놓았다. 앞으로 시설방역, 학술연구용역, 도시재생, 조정시설물, 모바일 앱 제작 등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가 온라인몰에 등록될 예정이다.

공공구매 플랫폼에 참여한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온라인 플랫폼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주문 비대면 방식의 금융장터를 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조기에 회복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35.40 (-10.42)
- ↑ 금리(국고채 3년) 0.926 (+0.012)
- ↑ 코스닥 685.04 (+2.74)
- ↑ 환율(USD) 1220.50 (+0.60)



“맛있는 간식 먹고 힘내자”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왼쪽)은 11일 북구 민들레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50곳에 전할 ‘어린이 착한 간식’ 지원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지원금과 함께 전달된 간식과 선물은 아동센터 인근 소상공인으로부터 선결제해 마련됐다. <광주은행 제공>

코로나 장기화에 늘어나는 구직급여

1분기 광주·전남 2만3423명
전년비 13.6% ↑ 역대 최대



올해 1분기 광주·전남 구직급여 신청자가 2만3000명을 넘기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실업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채용 축소·연기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3월 지역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광주 1만1583명·전남 1만1840명 등 2만3423명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분기 지역 구직급여 신청자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610명)에 비해서는 3000명(13.6%) 가까이 급증했다.

1분기 전국 구직급여 신청자는 43만7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명(16.2%) 넘게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52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가 줄면서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도 폭 떨어졌다.

지난 3월 지역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 수는 광주 2553명·전남 2926명 등 547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광주 고용보험 취득자는 1000명 넘게 줄었고, 전남도 2000명에 가까운 1956명 줄었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가 급감한 것은 기업이 채용을 축소하거나 연기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격 상실자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기업이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 유지 노력을 한 결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지난달 전국 고용보험 취득자(56만명)는 40대, 50대, 60대 이상에서 모두 증가했지만, 29세 이하와 30대에서는 각각 4만7000명, 5만7000명 감소했다. 29세 이하와 30대 가입자 감소 폭은 3월보다 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역시도 분양권 전매 금지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

8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되고 있는데, 이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전매 금지란 원칙적으로 분양권의 거래를 막는 것이다.

8월 이후에는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광주를 비롯한 광역시에는 도시지역에 한해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된다. 광역시도 지도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있기에 이곳도 웬만하면 전매금지 지역이 되는 셈이다. 정부가 수도권과 광역시의 전매제한 대상을 확대한 것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 청약과열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연합뉴스

“집밥이 안전해”... 코로나19 이후 외식 감소

국민 10명 중 8명 외식 줄고
친환경농산물 구매량 증가

국민 10명 중 8명 외식 줄고 친환경농산물 구매량 증가

국민 10명 중 8명 가량(79.5%)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식 횟수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시도민 101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활용해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 변화' 설문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79.5%는 코로나 19 이후 석 달(2~4월) 동안 외식 횟수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동일하다'고 답한 비율은 16.9%였고, 외식 횟수가 증가했다는 응답률은 3.6%에 그쳤다. 외식 횟수 감소 정도를 월평균 가구소득 별로 보면 ▲200만원 미만 69.3% ▲200만~300만원 미만 64.0% ▲300만~400만원 미만·400만~500만원 미만 각 64.1% ▲500만원 이상 63.4% 등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외식 횟수를 더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국산 농축산물 구매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7.1%로, 감소

했다고 응답한 비중 14.1%보다 높았다.

농산물 종류별로 보면 친환경농산물 구매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1.2%로,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 8.1%보다 높았다. 하지만 꽃 구매량의 경우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33.2%)이 증가했다는 답변(6.0%)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답자의 67.6%는 코로나 19 이후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69.5%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74.9%는 식량안보가 중요해졌다고 각각 응답했다.

48.8%는 코로나 19 이후 농축산물 안전성을 더 고려한다고 답했다. 반면 수입산 농축산물 구매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7%로,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 32.1%보다 낮았다.

코로나 19가 진정된 후 농촌관광 횟수를 늘리겠다는 답변은 절반에 가까운 44.5%에 달했다.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중(20.3%)은 감소했다는 응답 비중(8.2%)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